

휴가 年14일... 복권판매대 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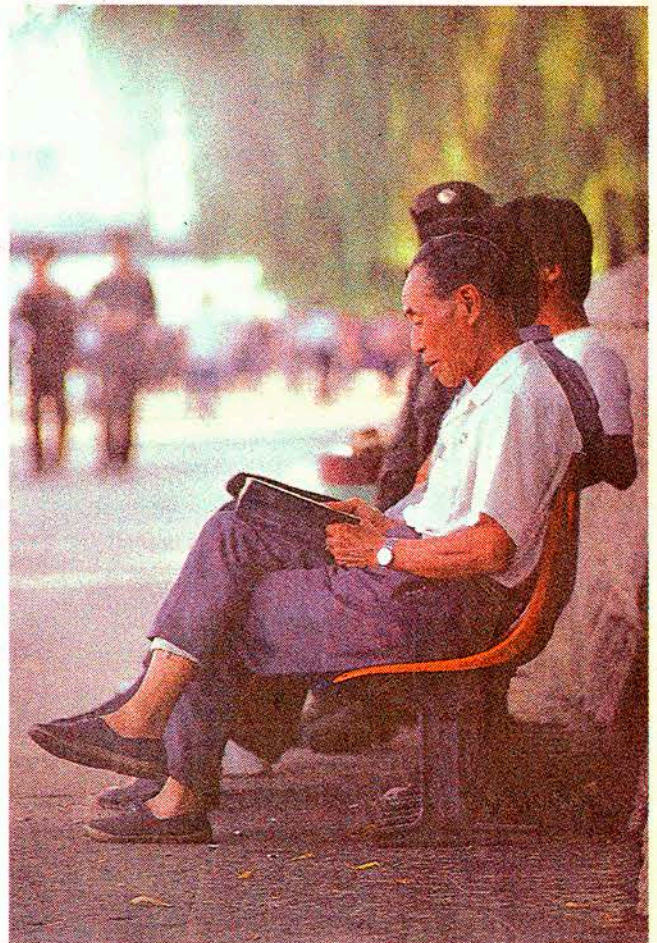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은 1주일에 하루 쉼 휴식을 취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1년 휴가는 보통 14일간씩으로 되어있다. 북한 사람들은 공휴일에는 낚시를 즐기는등 여가생활을 보낸다. 북한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날 평양거리를 산보하면서

잡아 물이 들어 있는 비닐주머니에 담은뒤 실로 끈을 매 팔고 있었다.

나는 대동강의 강변도로를 지나 만수대극장앞에 있는 문수공원을 찾았다. 4~5살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나를 보자 『엄마, 외국손님 보라구. 사진기도

에서 두는 장기는 말이름을 한자 대신 한글로 써놓고 있다.

보도위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담소를 하고 있던 노인들에게 한 중년남자가 다가감은 가방에서 골동품같은 도자기 그릇을 내놓으면서 사라갔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시민들이 산책을 나와 버드나무밑에서 한가롭게 책을 보고 있다.

람을 보지는 못했다. 바둑협회는 조총련출신들이 만들었으나 일반에게는 거의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평양 사람들은 모란봉 대성산 만경대에 올라가 놀기를 좋아한다. 모란봉 공원을 갔을때 나이 많은 여자들이 10여명 같이 모여 옛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

돌탁자 주변에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눠 마시며 놀았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학생들이 있어 가까이 다가가 노래를 들어보니 보통노래가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노래로 학생들이 만든 노래같았다.

나는 녹음기를 대고 그 노래를 부탁했더니 학생들은 대신 「국제민주청년가」를 부르기 시

타스통신 前평양특파원이 본

북한의 풍물



< 5 >

목격한 풍경을 소개한다. 지난 90년 여름 일요일을 맞아 햇벌이 따갑지 않고 기분 좋게 내리 비치고 있는 평양거리를 산보했었다. 대동강 강변에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뒤섞여 낚시를 하고 있었다.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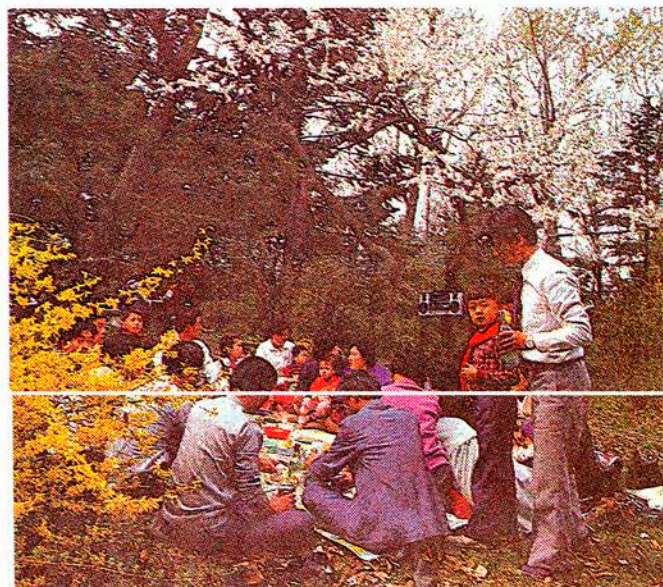
지나가는 사람들이 낚시꾼들에게 『어때 잘 돼가는가』라고 물어보았다. 쥐색의 제복을 입은 한 중년의 낚시 바구니에는 2~3kg정도 되는 잉어가 들어있었다. 이 낚시꾼은 꾸조리고 앉아 부드러운 흙으로 낚시용 미끼를 만들어 이 속에 모래와 혼합된 껍묵을 넣었다.

이 미끼를 낚시에 매달아 강물 안쪽으로 내던졌다. 낚시꾼은 잠시후 방울이 딸랑거리자 줄을 잡아당겼으나 줄끝에 있던 미끼만 없어지고 물린게 없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양에 있는 복권 판매대에도 사람들이 몰린다. 대동강의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제1백화점 옆에서는 한 여자 판매원이 복권을 팔고 있었고 손님들이 꽤 있었다.

판매원 옆에 있는 작은 책상 위에는 수백장의 복권이 있고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볼펜이나 연필이 없으면 성냥개비로 잉크를 찍어 복권에 써놓은 숫자를 X자로 지우고 있었다. 숫자 10개중 5개를 표시해 그 숫자가 맞으면 상품을 타는 것이었다.

또 한편에서 물고기를 파는 자전거 주위에도 젊은 부인들이 모여들었다. 자전거위에는 유리어항이 몇개 놓여 있고 어항 속에는 금붕어가 들어 있었다. 판매원은 작은 채로 물고기를



교외로 소풍 나온 평양시민들.

자하르젠코 이완 타스통신 서울지국장

강가모여 「한글장기」·방울낚시 소일

집에선 TV시청...어린이프로에 다즈니만화도
조총련계서 바둑협회 결성... 보급은 거의 안돼

있어. 사진을 찍네」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자, 외국손님에게 인사를 해야지』하고 말하자 아이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다.

지하도를 지나자 중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야,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라며 마치 고릴라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양거리를 산보하던중 보통강 기슭의 버드나무 그늘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북한

할아버지가 큰 그릇을 하나 들고 값을 물어보고 있었다. 노인들에게 수작을 걸고 있던 이 중년남자는 내가 다가가자 『아마 기자이신 모양이죠』하고 그릇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는 『어느나라에서 왔는가』라고 물었고 내가 소련에서 온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아 좋소. 형제같다고 그럴까』라며 담배를 깊이 들이 마시던 시선을 장기관으로 돌렸다.

북한에도 지난 90년 바둑협회가 결성됐으나 바둑을 두는 사

었다. 노래중에는 새타령이 있어 녹음을 했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새가 새가 날아든다/실실 늘어진 양버들엔 황금이든가/피플새야 구성진 내노래 못들었나/금수강산이라 살기가 좋아서 노래하네/동기둥가 둥둥 동기둥기 둥둥/이나무 저나무 찾아서 갯매기 정정 날아든다」(갯매기는 갈매기의 평양방언인듯)

여기에서도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따로 놀고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모란봉에 있는

작했다. 내가 다시 부탁을 했으나 학생들은 다른 노래는 모른다고 발뺌을 했다.

평양시민들은 저녁때가 되면 집에서 TV를 본다. 평양에서 방송되는 만수대 TV는 불만한 영화와 프로가 있다. 북한 드라마 이외에 소련 중국 홍콩등 외국영화도 방영한다. 어린이시 간에는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를 비롯한 외국프로가 방영되지만 방송시간은 5~10분밖에 안 된다.